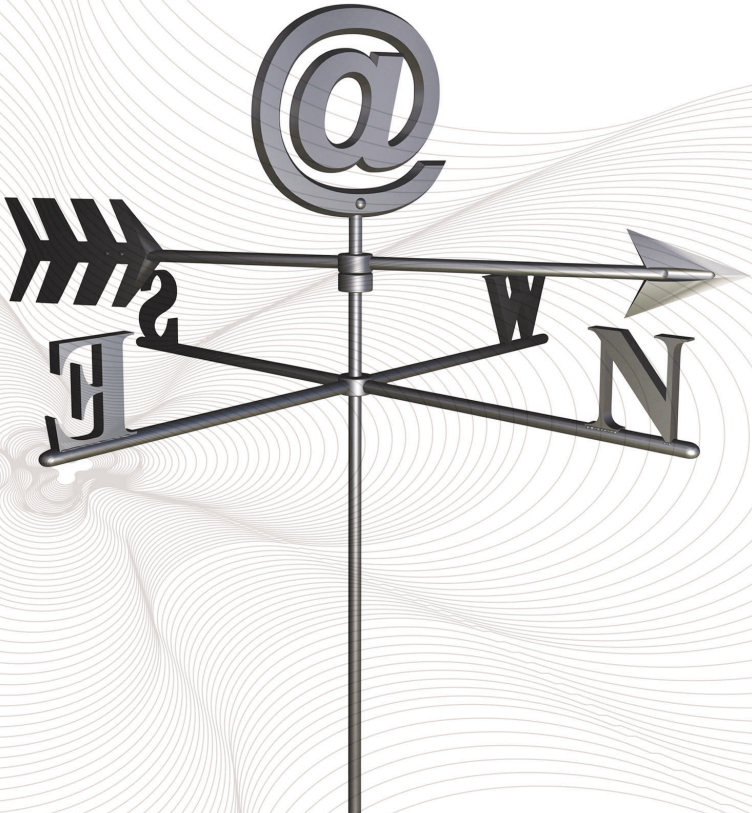
2006년도 TTA 사업 추진내용 및 방향 (표준화부문)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진병문

IT 기술의 발전과 기술융합의 진전으로 다양한 기술간 표준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제 표준은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TTA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IT분야의 표준화 전략수립, 표준의 제개정 및 표준적합성 시험·인증 등 「IT 표준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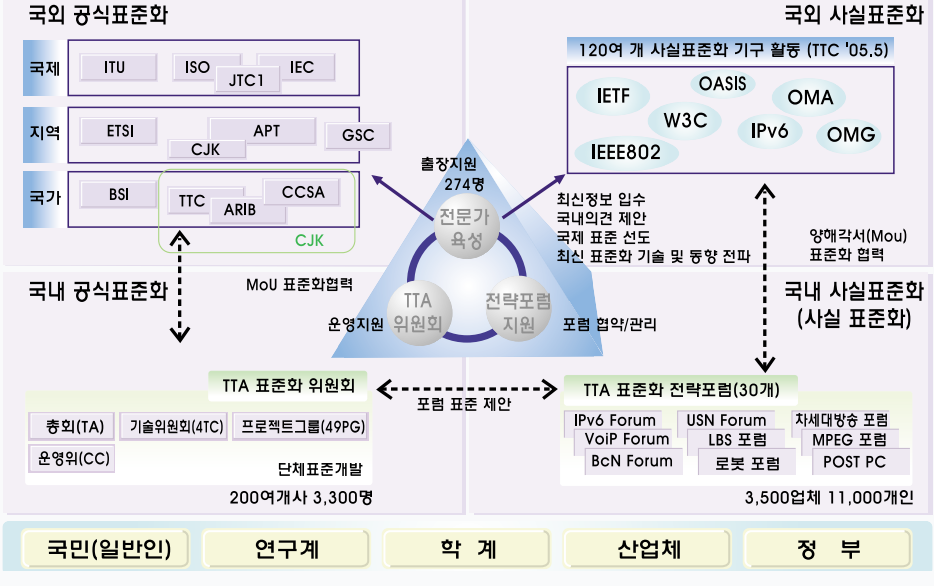


▶ 정보통신단체표준 제 · 개정

> 표준화 중점 추진방향

TTA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신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표준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업계와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업계가 필요로 하는 표준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세계 수준의 IT표준화 기구와 어깨를 나란히"라는 TTA비전 하에, IT839 전략 분야 중 2005년에 성공적으로 추진된 'WiBro 표준의 IEEE 국제표준 채택', '지상파 DMB 표준의 유럽(ETSI)표준 채택'과 같이 보다 적극적이고 기술 선도 및 신규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표준 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집중 강화하고, 국내 표준화활동의 3대 요소인 'TTA 표준화위원회', '표준화 전략포럼', 'IT국제표준화전문가' 간 합동회의 개최, 상호 참여, 기술융합 분야 연합 추진 등,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국내표준화와 국제표준화가 동시에 하나의 Cycle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TTA는 향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RFID 등에 관한 표준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 및 IT 소외계층의 편의를 위한 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화를 통해 세계첨단기술을 조기에 응용 도입하여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우리의 비교우위 기술을 국제표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및 산업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IMT-Advanced 및 BcN 등 주요 표준화 분야에 있어 한 · 중 · 일 표준화 기관간 협력을 통해 세계 및 지역 표준화기구에서의 활동을 주도해 나아갈 예정이다.
향후, TTA 표준화는 국가 IT 산업 경쟁력 향상,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국민복지와 통신망의 안정적 운용,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양질의 표준과 더불어 IT · BT 융합 기술 등 신규 산업 창출에 필요한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술분야별 표준화 추진 방향

공통기반 기술분야에서는 정보보호, 복지통신 등의 표준화 및 IT839 전략과 관련된 임베디드 S/W, IT SoC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2005년 4월에 제정된 한국형 디지털 TRS(TETRA) 표준 77건의 유지보수와 TETRA 시스템간 상호연동을 가능케하는 ISI(Inter-System Interface)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될 ITU-T SG17(보안) 국제표준화 회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송통신 기술분야에서는 IT839 전략 중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인 BcN, IPv6, VoIP, 디지털 홈 등에 대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ITU-T SG13 및 FG NGN, 한중일 NGN WG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한국형 BcN 표준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제안한 CMIP(가입자 주도형 IP망 구조) 표준이 ITU-T 표준채택 과정 중에 있으며, 올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홈 서비스를 위한 QoS 제공 표준안을 마련하여 2006년 상반기에 단체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서로 다른 디지털홈 내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센싱플랫폼과 홈서버간의 연동 표준안과 스트리밍 서비스 표준안 등을 2006년말 제정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분야에서는 국내 이동통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적극 반영하고, 4세대 이동통신 선행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 3GPP2회의를 2월 20일부터 28일간 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4세대 이동통신 방향정립을 위해 한중일 B3G 표준협력회의를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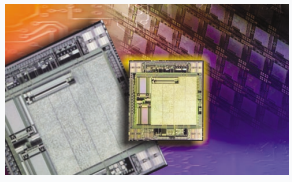
전파통신분야 중 WiBro는 50Mbps급의 전송속도 지원이 가능한 2단계 표준 및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IOT/RCT(Interoperability Test/Radio Conformance Test) 표준을 2005년 12월 완료하였고, 2단계 표준의 경우 IEEE 802.16으로의 국제표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IOT/RCT 부분들에 대해 WiMAX로의 표준화 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무선LAN 표준화 추진 및 무선 홈 네트워크 기술의 총아인 ZigBee, UWB와 같은 WPAN 기술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RFID/USN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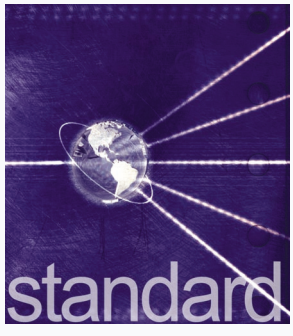
지상파 DMB와 연관된 표준화 추진과 국제표준으로의 반영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웹, 전자거래, S/W 등 IT응용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NGIS 분야의 표준화도 추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IT 응용 분야에서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표준화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URC(Ubiquitous Robot Companion) 센서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로봇 시스템 기술개발과 이들간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에는 방대한 양의 TTA표준을 중소기업 등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용이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분야별로 주요 기술표준들을 선정하여 해당 표준에 대한 표준 요약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금년에 TTA는 총 600건의 단체표준을 제 · 개정할 예정이다. 분야별 표준 제 · 개정 목표 중 전파방송분야가 271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중 230여 건은 IMT-2000 분야의 표준이다.





분야별 표준 제 · 개정 목표 (2006년)

구 분	전기통신분야	전파방송분야	기반 및 정보기술분야	계
상반기	26	13	10	49
하반기	140	258	153	551
계	**166**	**271**	**163**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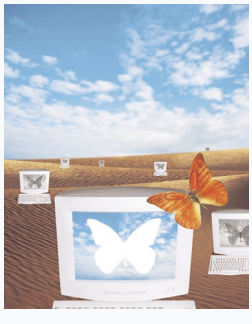
TTA는 급변하는 IT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을 추진할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IT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케 하고, 표준 인터페이스의 사용을 통해 편리성을 향상시키며, 산업계에는 선진기술의 조기 도입, 중복투자 방지, 그리고 국제시장의 선점을 통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발전토록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을 조기에 달성하여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지원 : IT표준화전략포럼, IT국제표준화전문가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국제 표준화포럼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TTA는 2000년부터 전략 포럼들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해 오고 있다. 2005년에는 33개 포럼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여기에는 중소기업, 관련 업체, 학계, 연구계 등 3,600여 기관과 11,500여 명에 달하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등 민간 표준화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6년도에는 IT839 전략 중심의 전략 포럼을 보다 활성화시켜 산업체의 표준화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국내 표준화활동이 국제표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TTA는「IT국제표준화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명예전문가 54명을 포함한 274명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였고, 이들은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표준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GPPs(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s) 등 131개의 회의체에 92명이 의장단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6년에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위와 같은 국내 및 국제 표준화활동에 관련된 기술동향 및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 관련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전략적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T 국제표준화전문가, IT표준화전략포럼 활동 전문가, TTA표준화위원회 활동 전문가들이 수집한 기술정보를 매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IT Standard Weekly (www.tta.or.kr/weekly)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표준화 워크숍」, 「국제표준화전문가 교육」, 「국제표준화전문가 워크숍」등을 지속적으로 기획 · 개최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표준화 기획전략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은 표준화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TTA는 2006년도에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을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서 개발하고, 주요 국제/지역/국가/사실 표준화 관련 기구(ITU, ISO/IEC JTC1, ETSI, TIA, TTC, CCSA, W3C, IEEE 등) 및 국가(미국, 유럽, 일본 등)의 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우수 성공사례(WiBro, DMB 등)를 발굴하여 향후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표준과 연계된 통상 이슈 및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국내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TTA